

## 2월 은행 연체율 동향



[Analyst] 은경완 연구위원 ✉ kw.eun@shinhan.com 박현우 연구위원 ✉ phw@shinhan.com

## 2월 은행 연체율 동향

## 2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6bp MoM, +15bp YoY)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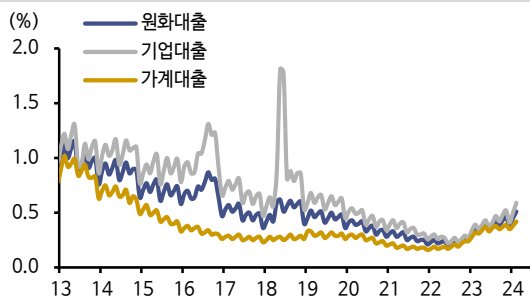
◆ 2월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6bp MoM, +15bp YoY)을 기록.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 지속.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가계대출은 신용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 한편 3월 연체율은 분기말효과를 고려하면 하락 예상

◆ 2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9조원, 정리규모는 1.3조원으로 연체채권 잔액은 전월대비 1.6조원 증가. 신규 연체율은 0.13%(Flat MoM, +4bp YoY)로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20bp YoY)로 전월대비 9bp 상승.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6bp MoM)을 기록.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70%(+10bp MoM), 0.61%(+5bp MoM). 참고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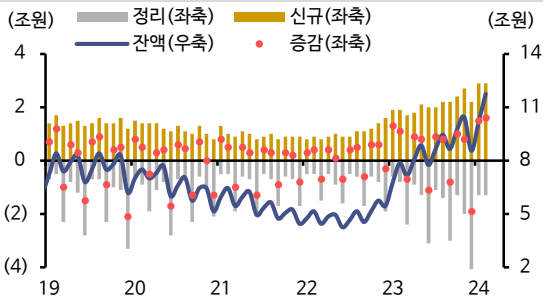
◆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10bp YoY)로 전월대비 4bp 상승. 주담대 연체율은 0.27%(+7bp YoY)으로 전월대비 2bp 오르며 상승폭이 제한적. 신용대출 등 기타 연체율은 0.84%(+20bp YoY)로 전월대비 10bp 상승

## 은행권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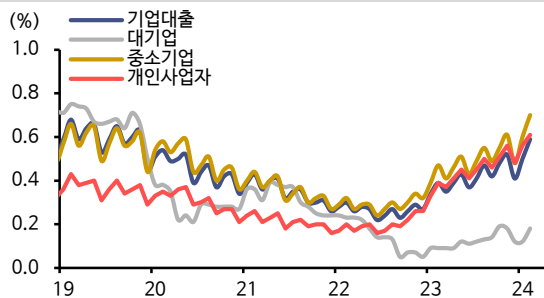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은행권 연체채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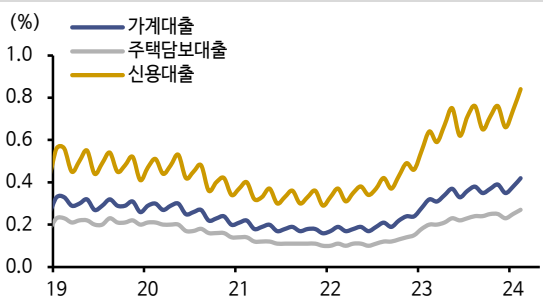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은행권 세부부문별 연체율 현황

(%, %p)	4Q19	1Q22	2Q22	3Q22	4Q22	1Q23	2Q23	3Q23	4Q23	24.01	24.02	MoM
원화대출	0.36	0.22	0.20	0.21	0.25	0.33	0.35	0.39	0.38	0.45	0.51	0.06
기업대출	0.45	0.26	0.22	0.23	0.27	0.35	0.37	0.42	0.41	0.50	0.59	0.09
대기업	0.50	0.23	0.14	0.05	0.05	0.09	0.11	0.14	0.12	0.12	0.18	0.06
중소기업	0.44	0.27	0.24	0.27	0.32	0.41	0.43	0.49	0.48	0.60	0.70	0.10
개인사업자	0.29	0.17	0.16	0.19	0.26	0.37	0.41	0.46	0.48	0.56	0.61	0.05
가계대출	0.26	0.17	0.17	0.19	0.24	0.31	0.33	0.35	0.35	0.38	0.42	0.04
주택담보대출	0.20	0.10	0.10	0.12	0.15	0.20	0.22	0.24	0.23	0.25	0.27	0.02
신용대출 등	0.41	0.31	0.34	0.37	0.46	0.59	0.62	0.65	0.66	0.74	0.84	0.10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은행권 신규 연체채권 및 정리규모 현황

(조원)	2023												20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신규 연체채권	1.9	1.9	1.7	1.8	2.1	2.0	2.0	2.2	2.2	2.4	2.7	2.2	2.9	2.9
연체채권 정리	0.6	0.8	2.4	0.9	1.3	3.1	1.1	1.4	3.0	1.3	2.0	4.1	1.3	1.3
연체채권 잔액	6.8	7.9	7.2	8.1	8.9	7.8	8.7	9.5	8.7	9.8	10.5	8.6	10.2	11.8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산업 용어 해설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은경완, 박현우).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 시 대표 주 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